

“학생 돌봄에 만전 기해달라”

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예산 심사

‘제식구 감싸기’ 진행 재무감사 실효성 의문 제기도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 고창2)는 지난 주 도 예산안 심의에 이어, 7일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정병익 전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각종 현안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 및 추진계획을 묻는 정책질의가 이어졌다.

등돌봄전담사 2차 파업에 대한 대안과 국회에서 ‘중일 돌봄 특별법’이 발의됐는데 교육청의 입장을 질의하면서, “학생 돌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 지역현안수요, 재해대책수요에 따라 도교육청에 매년 교부되고 있는데, 금번 예산안 제출일 11월 11일 5일 전인 11월 6일에 교육부에서 전북교육청에 국가시책사업 3건, 지역현안수요 11건, 재해대책수요 1건의 특별교부금을 교부 통지해 일부만 추경에 반영됐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조기에 교부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이율리, “재무감사 실시현황을 보면, 신분상 조치는 2018년 1,135건, 2019년 1,000건, 재정상 조치는 2018년 1억 8,447만4,000원, 2019년 2억3,077만원으로

로 꾸준히 학교회계 지출, 시설공사 계약 및 정산 등에서 지적되는 상황이다”면서 특히, 눈에 띄는 지적사례로 ‘매점사용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소홀’과 ‘교직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소홀’ 등인데, 최일선에서 학생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학교에서 매일 학생들을 대면하는 관계자 채용 및 계약시 기본적인 조사조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재무감사 처분결과는 교직원 신분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의와 경고밖에 없어 재무감사가 ‘제식구 감싸기’로 진행돼 재무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영규 의원(익산4)은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어울림학교, 공동 통합구형 등이 있어 3년간 22억 정도 예산을 투입했으나 2021년도 예산은 21억 3천만원 정도로 줄었다”며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나, 학교마을 협력형 등은 혜택받는 수가 줄어들었는데 학생 수가 줄어든 이유를 묻고, 정주 여건이 좋지 않아 감소한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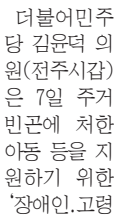
판단되므로, 교육청에서 적극적·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 매력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자체와 협력하는 등의 종합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이재 의원(정주4)은 코로나 19로 청소년 도박 문제, 성폭력, 언어폭력 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어떻게 예방하고 있는지를 질의하고, 청소년 외에 학부모 교육도 필요함으로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주영은 의원(정주9)은 “지난 2018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도박문제 10.3%로 전국 3위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더욱 심각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 한국도박문제관리전북센터에 위탁·운영 중에 있다고, 학생들 스스로 치료를 위해 가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특히, 경계에 있는 아이들 또한 관리가 필요하며, “전북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폭 아이들을 관리 중이므로 센터와 연계해 공동으로 대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유호상 기자

주거약자 주택문제 해결 단초 마련

민주김윤덕 의원 ‘빈곤 아동 주거복지 지원’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은 7일 주거빈곤에 처한 아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고령자·아동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주거약자를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소녀 가장을 비롯한 주거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의 경우 이 법에서 제외돼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주거기본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택

이 아닌 임시 거처에 사는 주거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주거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아동도 주거약자의 관점에서 보호를 받는 동시에 이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 지원이 필요한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이 법에서 정한 대한 주거지원계획 및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등의 주거 지원을 적용받도록 해 아동의 주거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 지원이 필요한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이 법에서 정한 대한 주거지원계획 및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등의 주거 지원을 적용받도록 해 아동의 주거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 지원이 필요한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이 법에서 정한 대한 주거지원계획 및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등의 주거 지원을 적용받도록 해 아동의 주거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 지원이 필요한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이 법에서 정한 대한 주거지원계획 및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등의 주거 지원을 적용받도록 해 아동의 주거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 지원이 필요한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이 법에서 정한 대한 주거지원계획 및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등의 주거 지원을 적용받도록 해 아동의 주거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 지원이 필요한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이 법에서 정한 대한 주거지원계획 및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등의 주거 지원을 적용받도록 해 아동의 주거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 지원이 필요한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이 법에서 정한 대한 주거지원계획 및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등의 주거 지원을 적용받도록 해 아동의 주거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 지원이 필요한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이 법에서 정한 대한 주거지원계획 및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등의 주거 지원을 적용받도록 해 아동의 주거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 지원이 필요한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이 법에서 정한 대한 주거지원계획 및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등의 주거 지원을 적용받도록 해 아동의 주거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 지원이 필요한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이 법에서 정한 대한 주거지원계획 및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등의 주거 지원을 적용받도록 해 아동의 주거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 지원이 필요한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이 법에서 정한 대한 주거지원계획 및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등의 주거 지원을 적용받도록 해 아동의 주거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 지원이 필요한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이 법에서 정한 대한 주거지원계획 및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등의 주거 지원을 적용받도록 해 아동의 주거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 지원이 필요한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이 법에서 정한 대한 주거지원계획 및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등의 주거 지원을 적용받도록 해 아동의 주거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 지원이 필요한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이 법에서 정한 대한 주거지원계획 및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등의 주거 지원을 적용받도록 해 아동의 주거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 지원이 필요한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이 법에서 정한 대한 주거지원계획 및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등의 주거 지원을 적용받도록 해 아동의 주거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 지원이 필요한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이 법에서 정한 대한 주거지원계획 및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등의 주거 지원을 적용받도록 해 아동의 주거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 지원이 필요한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이 법에서 정한 대한 주거지원계획 및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등의 주거 지원을 적용받도록 해 아동의 주거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 지원이 필요한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이 법에서 정한 대한 주거지원계획 및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등의 주거 지원을 적용받도록 해 아동의 주거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 지원이 필요한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이 법에서 정한 대한 주거지원계획 및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등의 주거 지원을 적용받도록 해 아동의 주거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 지원이 필요한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이 법에서 정한 대한 주거지원계획 및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등의 주거 지원을 적용받도록 해 아동의 주거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 지원이 필요한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이 법에서 정한 대한 주거지원계획 및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등의 주거 지원을 적용받도록 해 아동의 주거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 지원이 필요한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이 법에서 정한 대한 주거지원계획 및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등의 주거 지원을 적용받도록 해 아동의 주거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 지원이 필요한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이 법에서 정한 대한 주거지원계획 및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등의 주거 지원을 적용받도록 해 아동의 주거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출범식. 이날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수석부위원장 등 민생연석회의 책임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출범식에서 택배사업주, 택배종사자 등 사회적 합의기구 대표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비대해진 투입예산, 공교육 질 저하 요인으로”

조동용 도의원, “양적 확대보다 질적 개선으로 전환해 혁신학교 개선 시급”

지난 2011년 전북도교육청이 처음 도입한 혁신학교가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혁신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도내 혁신학교는 도입 당시 20개 학교로 출발해 현재는 180여 개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돼 있다(2021년 16개 학교 추가지정 포함).

도내 초·중·고 800여개 학교 중 약 23%가 혁신학교인 셈이다.

혁신학교는 공교육이 안고 있는 획일적인 교육과정의 폐해를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교육으로 전환함으로써 학교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그런데 약 10년간 혁신학교 지정 확대만 이어왔을 뿐, 이를 공교육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뿌리내리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은 7일 열린 교육청 소관 예결위 심사에서 “혁신학교에 투입되는 교육재정만 40여억 원에 이르는데 이것이 오히려 공교육 전반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정부담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혁신학교 추가지정을 통한 양적 확대에서 혁신학교 운영 성과를 공교육 전반에 확산시킬 수 있는 질적 개선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승환 교육감이 가장 우선시한 정책 중 하나가 혁신학교 활성화지만, 지난 10년 동안의 운영성과를 엿볼 수 있는 객관적인 통계치나 분석조차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으면서 “혁신학교 수 감소방침과 함께 그간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공교육 전반으로 확산시키므로써, 이른바 ‘필라드식 혁신학교’가 도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유호상 기자

성장기 학생들에게 채식 식단 적절할까?

박용근 도의원 “도내 학교 채식의 날 운영 적절성 고민을”

전북도의회 박용근(행정자치위원회, 정수)의원이 7일 제3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교육청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채식의 날’의 적정성과 사업 성과를 면밀히 점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지난 2011년부터 전북교육청은 채식 메뉴 확대 및 채식식단을 확대하는 ‘채식의 날’을 주 1회 운영하고 있고, 2021년부터는 총 사업비 291,000여만 원을 편성해 도내 초·중·고등학교 중 희망학교 학생 2만2,500명을 대상으로 채식식단 부식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용근 의원은 “현대 식습관이 점차 육식위주로 변하고 있기에 각종 성인병 예방 등 건강관리 차원에서 채식식단의 비율을 높이는 것은 적극 찬성이다”며 “그러나 이번 사업의 대상이 균형 잡힌 식단이 매우 중요한 성장기 학생이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수도 있는 만큼 사업의 적절성, 사업성과, 학생만족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전액 삭감 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예산통’ 민주 김수홍 의원, 지역구 국비확보 성과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익산갑)이 2021년도 익산시 국비 확보에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두면서 ‘2대 국회의원 중 최고의 예산통’이라는 명성을 보여주고 있다.



김수홍 의원은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정세균 총리의 장점을 방문을 이끌어 냈고, 내년도 예산에 장점을

치유회복센터(총사업비 340억원) 건립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하는 한편, 익산시민의 쉼터와 외부 방문객 유치를 위해 ‘국립 익산 치유의 숲’(총사업비 100억원) 유치에도 성공했다.

이율리,익산의 신성장 동력이 될 ‘실감콘텐츠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총사업비 300억)’를 익산에 건립할 수 있도록 설계용역비 총 18.5억원을 확보했다.

그 외 교육분야(전북기계공고 시청각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 환경(왕궁현업축사매입, 하수처리기 감량 등), 도시시설(서수·광장 국도대체우회도로, 서부내륙고속도로), 농산어(금강지역농업농원, 스마트농산업벤처창업캠퍼스), 문화(김병순 고택 매입, 서동생가터) 등 8개의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예산 확보에도 큰 성과를 거뒀다. /유호상 기자

민주 윤준병 의원, 정읍·고창 하반기 특교세 확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정읍과 고창지역 지역 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18억원을 확보했다.



윤 의원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특별교부세 확보 활동을 펼친 결과, ▲고창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 6억원

▲고창 북부권클러스터(농공단지) 진출도로 확포장사업 5억원 ▲정읍 장애인 이용시설 증축공사 4억원 ▲정읍 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 3억원 등 총 18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윤 의원은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중앙부처를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지역의 현안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며 “특교세 확보를 통해 농업인을 비롯한 장애인과 노인 등 지역주민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읍=립대환 기자



민간조사 전문기업

탐정 法人 해결사

가족 실종자찾기
민.형사 증거조사
개인.가족.기업 고민상담

010-5636-7755

907호